



<녹 취 문>

과제명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자	유 현 자 (호미마을 주민)		
면담자	정 지 선	면담지원자	표 기 자
면담일시	2025. 9. 30.	면담장소	구술자 자택(노적산로 40번길 45)
녹취문 작성자	정 지 선	회차	1회차

1. 시작 멘트 : 일시 및 연구진 소개 (00:00:00~00:01:33)

면담자: 본 면담은 2025년 인천광역시 미추홀 학산문화원의 주민 구술 채록을 위한 인터뷰입니다. 옛 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 도시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위해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구술해 주실 분은 유현자 대표님입니다. 일시는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 이고 장소는 구술자의 자택입니다. 면담 진행은 미추홀 시민기록단 정지선이 하겠습니다. 지원자는 미추홀 시민기록단 표기자 선생님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술자: 네.

면담자: 바쁘신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술자: 아! 네.

2. 개인 신상과 초등시절 학교와 용현동 이야기 (00:01:33~00:11:40)

면담자: 이름과 생년월일 태어난 곳을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저는 유현자이고, 진짜 생일 대면 되나요?

면담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구술자: 66년생입니다. 66년 12월 8일생입니다. 그리고 태어나기는 충북 음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천은 제가 4살 때 올라왔어요.

면담자: 그럼 진짜 생일은 언제세요?

구술자: 65년 뱀띠입니다.

면담자: 65년. 그러면 12월 8일이세요?

구술자: 9월생이에요.

면담자: 9월생. 1년 3개월이나 지나서 신고하신 거예요?

구술자: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면담자: 아! 네. 진짜 생일은 9월 며칠이세요?

구술자: 음력으로 21일이요.

면담자: 네.



구술자: 제가 가을에 태어났어요.

면담자: 네. 곧 생일이시겠네요. 그럼 충북 음성에서 태어나셨고 4살 때 인천으로 오셨는데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형제는 따로 없으셨어요?

구술자: 그때 내가 4살 때니까는 오빠들 언니들 다 같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학익초등학교 79년도 37회 졸업생이에요.

면담자: 79년도 37회요.

구술자: 네. 그때 학익초등학교 학생이 5,800명이었어요.

면담자: 와! 숫자를 명확하게 기억하시는데요?

구술자: 제가 옛날 일에 대한 기억력은 좋아요. 요즘 일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요.

면담자: 네.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대부분 학익 초등학교 나왔다고는 하지만 몇 회 졸업인지까지 말씀은 안 하셨었거든요. 조금 놀랐습니다.

구술자: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몇 반이었는지 다 알아요.

면담자: 대단하십니다. 그럼 중·고등학교도 인천에서 나오신 거예요?

구술자: 네.

면담자: 그럼 학익초등학교는 학익동에 살 때 다니신 건가요?

구술자: 아니요. 저는 용현동에서 학익초등학교를 다녔어요.

면담자: 그러면 4살 때 왔을 때 학익동에 정착한 게 아니셨던 거예요?

구술자: 그렇죠. 원래 아버지 친구분이 인천에 먼저 올라오셔서 집 장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께 인천에서 단독주택 지어서 팔면 돈 많이 번다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인천에 올라와서 집 장사를 하셨어요. 이 집도 그때 지은 집이에요.

면담자: 원래는 뭘 하셨던 거예요?

구술자: 충북 음성에서 우리 아버지가 대농(大農)을 했나 봐요.

면담자: 농사요?

구술자: 예.

면담자: 대농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 아주 크게 농사를 지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시니까 집 장사에 투자하실 수 있었나 봅니다.

구술자: 네. 그래서 집 장사를 한 거예요. 제가 그 덕분에 인테리어를 시작했던 거예요.

면담자: 그렇구나. 그러면 인천에 올라와서 처음엔 어디서 살았는지요?

구술자: 용현동이요. 인하대 후문에서 살았어요.

면담자: 후문 어디쯤인가요?

구술자: 지금 거기에 학산이라고 있잖아요?

면담자: 학산문화원 말씀하시는 거죠?

구술자: 네. 그 앞에 왜 큰 집이 하나 있죠? 거기에 진희라는 제 친구가 살았어요. 그래서 거



기서 제가 막 뛰어놓고 그랬어요.

면담자: 어? 저도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저 집은 누구 집일까?’ 했는데.

구술자: 오래됐어요. 예전에 그 근처에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잖아요? 옛날에 이 웅평¹⁾이 넘어올 때 거기서 레이더로 잡은 거예요?

면담자: 네. 얼핏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레이더 기지, 발포 기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술자: 응. 거기서 잡았어요. 제 친구 아버지가 아마 거기 부대 사령관인가 그랬나봐요. 그래서 어려서는 그 집을 사령관 집이라 그랬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그 집 지하에 가서도 놀고, 수영장에서도 놀았어요.

면담자: 그럼 그 근처에서 사셨던 거예요?

구술자: 우린 길 건너, 학산문화원 그쪽에 살았어요.

면담자: 인하 주유소 있는데요?

구술자: 네. 거기서 학익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용일초등학교가 더 가까운데 학익초등학교를 다녔어요.

면담자: 그렇게 왜 그랬어요?

구술자: 모르겠어요.

면담자: 학익초에서 용일초로 분교가 됐다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더 연배 있으신 분들은 학익초밖에 없었다고. 그러다 학익초에서 용현초, 문학초, 용일초로 계속 분교가 됐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구술자: 여기가 사람이 진짜 많이 살았거든요.

면담자: 네. 그럼 초등시절에 학교는 어느 길로 다니셨나요? 용현동에서 학익초까지 어떻게 다니셨는지요?

구술자: 산속으로 다녔지요.

면담자: 아! 지금 재념이고개라고 하는 곳인가 보네요. 그 길이 옛날 구(舊)도로라고 하더라고요.

구술자: 거기에 송신탑도 있고 막 그랬어요. 송신소도 있었고요.

면담자: 그럼 대표님이 그때 학교 다니면서 봤던 풍경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월요일 아침만 되면 제가 학교에 안 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1학년 때는 맨날 우리 오빠가 저를 업고 다녔어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맨날 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 집 사원 주택도 있었는데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면담자: 왜 그곳에서 살았을까요?

구술자: 글썄요.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산을 넘어올 때 보면 그냥 전설의 고향

1) 대한민국의 탈북민 출신 군인



같은 데에 나올 것 같은 길이었어요. 옛날에는 뚝 쌓는 것도 좀 약하니까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산소(묘지)가 유실돼 갖고, 관 같은 게 이렇게 부러져서 드러나 있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기에 무덤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비가 오고 나서 관이 부러져 있는 걸 보고 묘지인지 알았던 거죠. 그거 한번 보고 나니까 그곳을 지나갈 때는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서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 오빠가 저를 업고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면담자: 오빠도 초등학생이었던 거예요?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아.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업고 다녔던 거네요?

그렇지. 같이 다녔던 친구는 없으세요?

구술자: 있는데, 저는 용현동에서 다녔기 때문에 애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면담자: 아! 대부분 다 용일초로 가니까.

구술자: 그리고 학익초등학교 그 뒤가 산이었는데, 진짜 사람들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방공호가 몇 개 있었어요. 왜 옛날에는 방공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민방위 훈련 같은 방공 훈련하면은 선생님들이랑 거기로 숨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개구멍 같은 것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글로 들어가서 막 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화장실도 푸세식²⁾ 그런 건데 그냥 땅 파 갖고 나무만 이렇게 걸쳐놔 갖고 막 무너져요. 그래 갖고 화장실 가는 걸 내가 되게 무서워했어요.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애가지요. 요즘 아이들은 행복하긴 한데, 너무 치열한 데서 살다 보니까 안쓰럽기도 해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우리 나이대들은 그래도 정서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정서가 메말랐잖아요. 컴퓨터가 친구고, 게임이 친구고요.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적인 혜택은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너무 각박하고요. 세상이 험해졌지만, 우리는 그래도 정이 있잖아요?

면담자: 네. 맞습니다.

구술자: 관용도 있고, 용서도 있는 그런 게 좀 잘 되면 좋겠어요. 요즘 아이들한테도 그런 걸 알려주고 싶고요. 예전에 우리 동네 골목 투어를 꼬맹이들이랑 했거든요. 그때 제목이 무슨 ‘풍당’이었는데?

면담자: ‘호미 마을에 풍당’

구술자: 네, 그때 꼬맹이들이랑 수업할 때 제가 정말 좋았어요. 그게 지속되지 못한 게 아쉽지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 학익동을 사람들이 예전에는 ‘깍동, 깍동’ 그렇게 불렀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여기에 집창촌이 있었거든요. ‘너 어디 사니?’ 그러면 ‘학익동 사는 데요’ 하면, ‘깍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결론은, 남들은 나쁘다고 해도 저는 학익동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집을 82년도에 지으셨거든요.

2) 배설물을 바깥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바닥에 쌓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퍼내는 방식의 재래식 화장실



면담자: 82년도요?

구술자: 네. 여기 82년도에 이 집을 지으신 거예요.

지원자: 43년 정도 됐네요?

구술자: 네. 아직까지 저는 여기서 살고 있지만, 남들은 이 동네가 불편하다고 떠나요. 이제 떠날 사람은 다 떠나고 토착 어르신들만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다 나가고 없잖아요? 여기에 서 제가 제일 젊어요.

면담자: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나요?

구술자: 그래도 제가 제일 젊어요.

면담자: 아! 네.

구술자: 제가 여기서 영계예요. 영계! 이 동네가 불편하지만,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아요. 전 아파트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되는 그런 동네로 이사 가고 싶어요.

면담자: 어딘가에 있겠죠.

구술자: 근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면담자: 네. 서울 가면 좀 있긴 할 텐데, 인천을 떠나기 싫으시니.

구술자: 서울 가면 개 딱지만 한 것도 게임이 안 돼요. 우리 집 10채 팔아도 안 돼요.

3. 가족 관계와 어린 시절 형제, 자매와의 추억 (00:11:41~00:20:37)

면담자: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되세요?

구술자: 2남 2녀요.

면담자: 좀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업고 다녔던 오빠가 바로 위에 오빠신가요?

구술자: 아니요. 내 위로 언니, 그 위로 오빠 둘이에요.

면담자: 그러니까 아들, 아들, 딸, 딸이었군요.

구술자: 근데 전 이런 얘기하는 게 왜 안 창피하죠? [웃으며] 옛날에 학익초등학교가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요. 언니랑은 두 살 차이가 나서 언니가 3학년이고 제가 1학년이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맨날 제가 나머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전반일 때는 오후반이 들어와야 하니까 나머지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 오후반이면 선생님이 나머지 공부를 시켜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노는 걸 되게 좋아했나 봐요!

면담자: 아! 공부엔 흥미가 없었나 보네요.

구술자: 네!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집어 던지고, 애들이랑 사방치기 해 갖고 밤에 11시까지 막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면담자: 어디서 주로 놀았어요?

구술자: 그 용현동! 거기에서 놀았어요.



면담자: 재념이고개 내려가서요?

구술자: 사령관 집 앞이에요. 옛날에 이사 왔을 때, 우리 집이 초가집이었어요. 장작불 때던 시절이었죠.

면담자: 상상이 안 돼요.

구술자: 마당도 있고.

면담자: 그 근처에 건물들이 아예 없고요? 도로, 인도 이런 것도 거의 없었다는 얘기네요?

구술자: 지금 있는 큰길은 있었어요. 근데 동네 안에는 다 흠이었어요!

면담자: 아스팔트가 아니라 다 흠이였다는 얘기신 거죠?

구술자: 네. 얼마 전에 제가 학익초등학교를 갔었는데, 보니까 보수만 했지 건물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창문이 되게 높았거든요? 제가 나머지 공부를 하면, 우리 언니가 창문에서 기다려요. 선생님이 칠판에다 문제를 내놓고 가면, 우리 언니가 창문으로 보면서 알려줘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마 '9 빼기 2는 얼마일까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도 모르고 들어갔거든요.

면담자: 그렇죠. 저도 한글은 모르고 들어갔어요.

구술자: 구구단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문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9 빼기 2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문제를 한 10개 내놓고, 선생님은 교무실로 갔다가 30분 정도 지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80명이 넘었어요. 88명, 87명 그랬죠. 그게 오전, 오후반이었어요. 선생님이 한번 왔다 가시면, 80몇 명 중에 한 50명이 남아요. 7개 중에서 3개 이상 틀리면 또 남는 거지요. 그리고 또 문제를 내놓고 가시잖아요? 두 번째도 제가 남아 있으니까, 우리 언니가 창문에 대고 '막내야! 그거 9 빼기 2는 7이잖아.' 이렇게 가르쳐 줘도 제가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 언니는 계속 알려줘요. 우리 언니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결국 10명 남는 끝까지 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러면 막 뿔이 나서, 나중에는 가방도 안 들고 교실에서 나와요. 그럼 우리 언니가 학교 들어가서 제 가방을 들고 뒤에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그렇게 우리 언니한테 심통을 부린 것 같아요.

면담자: 지금은 잘하시죠?

구술자: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형만 한 아우는 없어요. 그건 정말 정확히 맞아요. 우리 언니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수술도 하고, 그래서 학교를 잘 못 나가고 그랬어요. 그때 집에서 인형도 천가지고 바느질해서 만들어주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피부가 하얗고 뽀아서 귀티 난다고, 시골에 가면 우리 할머니가 어딜 가나 맨날 저만 데리고 다녔어요. 아버지 살던 음성에 가면 저보고 '이쁜이'라고 막 그러셨어요. 70 몇 년도에 삼양라면이 처음 나왔는데, 언니가 밥을 못 먹으면 엄마가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엄마는 저한테는 밥만 주셨어요. 라면은 안 주고요. 그리고 알사탕 알아요? 보름달 빵? 케이크나 카스테라처럼 된 거요. 그런 거 누가 사 갖고 오면, 저는 진짜 이만큼만 주고, 우리 언니한테



다 줘요. 알사탕도 한 봉지 사면 저는 두 개 주고, 나머지는 다 언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뒤뜰 안에 가서 울던 기억이 많아요. 그리고 원기소에 대한 추억도 있어요. 그 통이 되게 뚱뚱했어요. [양손으로 표현하며] 이만했어요. 옛날에 호마이카³⁾ 장롱이 있었어요. 그 위에다가 원기소를 올려놨는데, 제가 너무 극성맞았던 것 같아요. 의자 놓고 벽에 짚고, 부지깥이로 그걸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제 뒀에는 그게 무게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다 모래를 잔뜩 넣어서 또 올려놨어요. 바로 들통나는 건데 말이죠. 그때 왜 그랬냐면 우리 언니는 원기소를 한 스무 알쯤 주는데, 저는 한 알, 두 알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서 주머니에 뽕뽕하게 넣고 다니면서, 학교 갔다 와서 저녁때까지 그걸 다 먹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막 설사를 하니, 범인은 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걸려서 뒤통에 맞았지요. 근데 그게 너무 서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후에 인테리어 매장을 오픈하고 나서 약국에 갔어요. 옛 기억이 너무 강해서, 약사님한테 ‘약사님! 요즘에도 혹시 원기소라는 게 나오나요?’ 그랬더니 바로 갖다주시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옛날 그 고소했던 맛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 사긴 샀지만요.

면담자: 이름이 원기소예요?

구술자: 네. 원기소요. 지금도 있대요.

면담자: 알약이에요? 가루약이에요?

구술자: 그냥 씹어 먹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고소하고요.

지원자: 맞아요. 예전에 고소했었지요.

구술자: 네! 지금도 판대요. 그 통이 이렇게 뚱뚱하고 하얘갖고 이만했어요.

면담자: 그게 어디에 좋은 성분이에요?

구술자: 그러니까 그게 뼈곰 C⁴⁾ 같은 그런 거예요.

면담자: 아! 종합 비타민제 같은 느낌이구나?

구술자: 막 씹어 먹는 거예요.

면담자: 그러니 배탈이 나시죠. 그걸 다 먹었으니까요.

구술자: 뭐 그랬던 이런 얘기 저런 얘가지요. 그리고 옛날엔 왜 숙제를 안 해가면 ‘영희야 철수야 놀자’ 그런 걸 왜 다섯 바닥씩 똑같은 걸 써오라는지 몰라요. 학교 갔다 나머지 공부하고 오면 승질(성질) 나잖아요? 그때 가방 집어 던지고 막 밤 11시까지 막 놀아요. 실컷 놀고 아침이 되면 엄마 불 때는 부뚜막에 앉아 갖고 막 우는 거예요. 학교에 숙제 안 해가면 혼나니까. 그러면 우리 엄마가 ‘금연아~ 막내 숙제 좀 해줘라!’라고 하면 언니가 숙제를 막 해줬어요.

3) 미국에서 개발된 내열 플라스틱판으로, 나무나 종이 표면에 멜라민 수지를 입혀 만든 표면 마감재를 뜻함. 반짝이는 광택과 내구성 덕분에 1970~80년대 한국 가정에서 장롱, 밥상, 책상 등에 널리 사용됨

4) 유한양행에서 1963년에 출시하여 현재까지 생산하고 있는 혼합비타민제



면담자: 공부도 잘하셨는데 아프셨다니 안타깝네요.

구술자: 네. 근데 우리 언니가 숙제를 해주면 선생님이 아시는 거예요. 언니는 공부를 잘하고 뭐든지 상도 타는데 저는 개판 아니에요? 선생님이 '너 이거 언니가 해주면 더 맞을 줄 알아!' 이런 느낌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날 되면 또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막내 숙제 좀 해줘라!' 그러면 언니가 '엄마! 선생님이 다 눈치채서 더 혼나 재.'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른손으로 하지 말고 왼손으로 써 줘라!'라고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요.

면담자: [다 같이 웃으며] 우와!

구술자: 왼손으로 써주라고요. 올 언니가 글씨 필적도 좋았거든요.

면담자: 아! 그래서 왼손으로 쓰라고 하셨구나!

구술자: 우리 언니가 왼손으로 써줬어요.

면담자: 언니의 도움이 컸네요!

구술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도 나중에 보니까 IMF 때도 그렇고 그냥 형만 한 아우는 없더라고요.

4. 학익동에 정착한 계기와 어린 시절 에피소드 (00:20:38~00:41:45)

면담자: 현재 사는 이 집을 아버님이 82년도에 지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당시에 아버님께서 학익동에 집을 지은 이유를 아시나요?

구술자: 아버지가 여기 땅을 사셨어요.

면담자: 땅을 사셨어요? 어디 얼마큼을요? 이 부지만 아니면 더 많아요?

구술자: 여기 지금 주신 자동차 학원이 옛날에는 태양광업이라는 공장이었어요.

면담자: 태양광업이요? 들어본 것 같은데요.

구술자: 태양광업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땅이 여기도 15평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좁은 골목이랑 앞에 도로까지. 여기 한 82평 정도를 아버지가 산 거였어요. 근데 쓰지도 못하고, 담장을 칠 래도 옆이랑 맞추려면 옹벽을 쳐서 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남의 땅으로 조금 넘어와도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그러고 살았어요. 요즘처럼 삭막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요즘은 0.1평이라도 들어가 봐요? 난리가 나지요. 내 땅 찾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시절이었고. 88년도에 서울올림픽 하면서 이 동네를 양성화했는데, 여기 우리 37통 말고. 저쪽 36통은 다 무허가였어요.

면담자: 길 건너요?

구술자: 네. 골목길 건너. 이쪽은 다 집 장사들이 지은 거고, 우리 집만 아버지가 지은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땅 모양이 이렇게(비스듬히)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이유는 15평 정도 되는 이등변삼각형 모양 땅이 편입된 거예요. 이걸 찾았으면 직사각형이 되는 건데, 저쪽에서 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당시 정확하게 10만 원씩에 팔았어요.



면담자: 평당이요?

구술자: 네.

면담자: 몇 년도예요? 비싸게 준 거 아닌가요?

구술자: 그때 88년도 올림픽 조금 지나서일 거예요.

면담자: 제가 그때 시세를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평당 10만 원이면 어떤 거예요?

구술자: 잘 받은 건 아니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 집의 재산세(땅값)를 낼 때 여기도 평수에 들어가니까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못 쓰는 땅이니까 그냥 팔아버린 거지요. 싸게 판 거예요.

면담자: 아! 싸게 판 거군요.

구술자: 여기 골목이 이 집이랑 여기가 번지수가 달라요. 이 골목을 10으로 봤을 때 8은 우리고 2는 저쪽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여기 도로에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 잘라버렸어요.

면담자: 그러면은 그냥 딱 요만큼만(현재 집의 크기) 인가 보네요.

구술자: 네. 지금 여기 차지해 있는 것만. 그리고 아버지가 여기에 집을 지을 땐 여기가 공업지대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건축법도 그렇고 정확하게는 딱 부러지게는 다들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는 여기 땅이 대지니까 일단 슬라브⁵⁾로 짓고 2층으로 올릴 설계 도면으로 집을 지으려는데, 일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옆집이랑 비교해보니 우리가 2층으로 집을 지으면 옆집이 폭 꺼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옆집이 우리 집보다 지대가 더 낮아서 우리 마당이 이 집 안방이었거든요.

면담자: 아! 그래서.

구술자: 2층까지 우리가 집을 지어버리면 옆집은 완전히 빛을 못 보니까, 도장을 안 찍어준 거예요. 그래갖고 전선까지 다 올리긴 했는데, 결국 2층은 못 올린 거예요.

면담자: 위로 전선까지 다 공사했는데요?

구술자: 네. 다 뺀 거지요. 그래서 바깥에 골목 있는 쪽에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 길도 막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면담자: 어떻게요?

구술자: 여기 도로도 우리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면담자: 그랬구나.

구술자: 집 안에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방이 그게 대문이었어요. 예전엔 여기(공방 자리)가 정원이었어요.

면담자: 아! 공방이 아예 없었구나.

구술자: 없었지요. 근데 공방 전에는 집이 있었어요.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아버지가 그냥 무허가로 저기다 집을 지어서 두 집을 세를 준 거예요. [생각하면 힘들다는 표정으로] 그래갖고 아

5) 건축물의 바닥이나 지붕을 이루는 넓고 평평한 구조물로 주로 철근 콘크리트로 제작



후 골치 아파! 근데 어느 날 내가 학교 갔다 왔더니 남구청에서 철거반이 온 거예요. 철거반이 슬라브를 쳤어요(때렸어요). 슬라브로 된 2층 저쪽 코너를 한 1m 넘게 오함마⁶⁾로 다 부숴버린 거예요. 이 벽도 좀 부서지고, 철근이 막 다 나온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서 보니까는 여기는 근린 상가밖에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주택으로 사용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지금 [손으로 가리키며] 주방 쪽에 문을 만들고 가게로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가게 문짝도 셔터가 아니라 나무로 이렇게 떼었다 붙였다 했잖아요? 그거 뭔지 알죠? 이렇게 올려서 빼고, 다시 넣는. 그게 다섯 짝인가 그랬어요. 지금도 이 집은 근생이예요. 다른 집들은 세금을 1년에 20만 원도 안 낼 때, 우리는 지금 세금 엄청 많이 내요.

면담자: 뭔가 벌이도 없는데 왜 세금을 내는지요?

구술자: 여기가 근생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공업지대라서 주택으로는 허가가 안 나요.

면담자: 왜 여기다가 자리를 잡으셨을까요? 아버님이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구술자: 아니 이걸 지어서 팔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집 장사할 때 장부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집 짓는 공정이나 뭐나 이런 게 익숙하게 제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면담자: 그래서 또 그 일을 하기가 더 수월하셨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와서 산 거는 언제세요?

구술자: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아니야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호적 나이로는 9살에 들어가서 85년도에 졸업했어요.

면담자: 그렇구나. 그럼 용현동에서 여기로 이사 오신 거잖아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아버지도 여기다 집을 지었지만, 옆에 집들은 다른 집 장사들이 지은 거예요?

구술자: [구술자의 집을 기준으로 아래쪽을 가리키며] 여기 집들이 먼저 지어진 거죠. 우리가 맨 나중에 지은 거예요.

면담자: 아!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당시 이 동네 풍경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구술자: 제가 여기 왔는데 이 집을 지을 때 요 밑에서 세를 살았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름인데도 장독대고 마당이고 온통 하얀 거예요. 그게 폐석회 가루였던 거지요. 동양화학에서 원료를 추출하려고 돌을 갈았거든요.

면담자: 예. 석회석을 깻다고 하더라고요.

구술자: 그래서 빨래도 못 널어 입었어요. 우리 엄마가 이런 곳에 땅을 샀다고 얼마나 뭐라했는지.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돌가루인 줄 몰랐어요.

면담자: 그때는 그 정화시설이 잘 안 돼 있었나 봐요?

구술자: 아유! 그럼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 동양화학 철길(현재 주유소와 커피숍이

6) 기다란 손잡이 끝에 금속 덩어리가 달린 도구. 보통 망치보다 더 큰 힘을 가할 수 있으며 그 면적 전체에 힘을 분산하여 전달함



있는 길로 나가는 길)에서 송도로 가는 11번 버스, 6번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저녁에 내리면 양쪽이 다 논이었고, 공장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땐 강원레미콘도 없을 때예요. 제가 노는 거 엄청 좋아하니까, 동인천 갔다 밤에 마지막 버스 타고 오면 카바이트⁷⁾ 있잖아요? 카바이트 알아요?

면담자: 네. 그 근처에 카바이트 공장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구술자: 동양화학의 철길에는 돌 나르는 화차가 다녔어요. 그 철길 지나가는 아래 개울 같은 데서는 화약 냄새 같은 게 막 났거든요. 근데 겨울에 거기를 지나가면 따뜻했어요.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카바이트 그걸 떠다가 불을 켜고 장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추우면 거기 내려가서 불피고 그랬어요.

면담자: 내려가다니요? 어딜 내려가요?

구술자: 그게 개울처럼 돼 있었어요.

면담자: 거기가요? 학익천 끝자락인가요?

구술자: 지금 그 주유소 뒤쪽으로 저기 동화 개발이라고 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었어요. 거기 가 개천처럼 흘렀어요. 그게 동양화학에서 내보내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땐 다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지 못했죠. 그리고 우리 집은 아니었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다 동양화학 덕분에 먹고 살았어요.

면담자: 네.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구술자: 동양화학 후문 길을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서 명동 거리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 이발소 골목에 동양화학 후문까지. 담배 가게도 엄청 잘 되고 그랬대요. 동양식당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 지금 마지막 그 끝에 전에 36평 통장 했던 그 통장님네 집도 거기도 식당이었대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0월 달에 독립 선언을 하고 나가서 혼자 살았어서 이 동네에 대해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어요.

면담자: 어디로 가서 사셨습니까?

구술자: 동인천이지요. 제가 동인천이랑 신포동을 너무 좋아해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저는 외국 나갈 좋은 기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동인천이랑 신포동을 너무 좋아해서 못 갔어요.

면담자: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럼 그 당시 그곳 풍경은 어땠나요?

구술자: 동인천이랑 신포동이 다 죽은 게 속상해요.

면담자: 근데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구술자: 아무리 살아난다 해도 그 시대를 모르면 얘기하지 말아야 해요.

면담자: 아! 네. 제가 그 또래는 아니지만, 50대 중반 되는 사람들이 신포동에서 놀았던 이야

7) 생석회와 탄소를 고온에서 반응시켜 만든 물질로, 물과 만나면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킴. 전기 없는 야외에서 간이 조명용으로 널리 쓰였음



기를 가끔 하시면서 지금도 가시더라고요.

구술자: 맞아요.

면담자: 그리고 식당들도 되게 오래된 데도 많고요.

구술자: 지금은 없어요. 거기 칼레스토랑⁸⁾도 지금 몇 집밖에 없잖아요? 다 문 닫아서. 그리고 잘 되지도 않고요. 그 시절은 배고팠던 시절이잖아요? 우리가 입이 고급이 돼서 그때만큼 맛 있지 않아요.

면담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집 장사가 정확히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술자: 단독주택 지을 땅을 매입해요. 매입을 해서 거기다 단독주택을 지(지어)요.

면담자: 본인이에요? 매입한 사람이?

구술자: 네. 그리고 목수랑 다 데려다가 집을 지어요. 옛날에 진 집들 보면 왜 [양손을 펼쳐서 ‘ㅈ’모양으로 약간 엇갈리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된 집 있죠? 기와? 그리고 앞에 옥상도 아닌 데스리⁹⁾가 이만큼 나와 있어요.

지원자: 장독 같은 거 놓는 곳을 말씀하시나요?

구술자: 그게 장독대는 아니에요. 그냥 앞에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창문도 이렇게 됐는데 창문이 요만큼 있고 그래요.

면담자: 아! 네. 그럼 학창 시절에는 신포동이나 동인천에 가서 놀았다고 했는데, 이 동네에서는 아예 안 놀았던 거예요?

구술자: 그 시절엔 우리 동네에 놀 게 없었어요.

면담자: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없었어요? 여기도 마을이었잖아요?

구술자: 여기가 마을이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독립 선언을 하고 집을 나갔잖아요? 나가는 조건이 ‘등록금만 3개월에 한 번만 대준다.’ 이거였어요.

면담자: 그럼 학교는 다녔던 거예요?

구술자: 학교는 다녔죠. 저는 고등학교 생활은 재밌었어요. 졸업할 때 너무 싫었어요.

면담자: 혼자서 사시는 게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가끔 집(본가)에 오시긴 하셨었어요?

구술자: 거의 안 왔던 것 같아요.

면담자: 아. 거의 안 왔던 것 같다. 그러면 중학교 때 시절의 모습만 기억나겠네요? 중2 때 여기 왔으니까요. 그럼 고1 때까지 한 3년 정도만 이 동네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네요?

구술자: 네.

5. 화학 공장들에 둘러싸인 마을에서의 삶 (00:41:46~01:11:33)

면담자: 중학교 시절 이 동네에 대한 기억이 좀 더 있나요?

8) 신포동 뒷골목에 있는 오래된 칼국수 골목을 말하며, 일명 ‘칼집’, ‘칼레스토랑’이라 불림

9) ‘난간’을 일컫는 일본 어투 생활 용어



구술자: 어린 나이에 그 허영게 가루 떨어지는 게 너무 싫었던 거 같아요.

면담자: 아!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게 여름도 겨울도 아닌데, 뭘지 모르겠으니까.

구술자: 빨래를 못 널어 입었으니까요. 여름에 손빨래해서 마당에 널면 툭툭 털어져서 빨래도 못 하겠다고 우리 엄마가 맨날 승질을 냈어요. 땅도 그지 같은 데다 샀다고요.

면담자: 냄새는 안 나셨어요?

구술자: 냄새났죠. 풍림아이원 자리에 원래 한국 파이프가 있었잖아요? 거기 쇠 돌아가는 소리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여기(동양화학)서 돌이 다르르르르 내려오는 소리. 그다음에 한국 농약에서 나는 농약 냄새, 여기가 최악이었어요.

면담자: 여기 근처에 두부 공장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구술자: 네. 두부 공장이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이러니해요.

면담자: 어디예요?

구술자: 지금 여기 가스 회사 있잖아요? 들어오는 골목에 요렇게 된 거 있잖아요? 철망같은 문? 그게 두부 공장이었어요. 거기가 되게 오래 했어요.

면담자: 거기서 두부 많이 사다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구술자: 그때 '아니 뭐 이런데 이런 공장이 다 있어? 저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어린 생각에도 그랬어요. 농약 냄새도 심했고요. 진짜 여기 사람들이 그래서 더 암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면담자: 여러 공장이 있는 공업지대에 속에 거주지가 만들어져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술자: 농약 냄새도 엄청 났어요. 여기 한불화학 있지요? 동양화학 있지요? 다 화학이잖아요? 더불어 한국 농약도 있고.

면담자: 다 화학회사죠.

구술자: 네. 여기 또 철강, 한국 파이프 있고, 또 무슨.

면담자: 청구 화공?

구술자: 그래 담배공장이 있었지요. 니코틴 냄새도 엄청 났어요. 여기 미추홀구 경찰서 맞은편 쪽으로. 그리고 그쪽으로도 다 조그만 공장이었어요. 가내수공업¹⁰⁾ 하는 공장. 그러니까 여기가 다 공업지대였던 거예요.

면담자: 성당에 있던 자리도 공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구술자: 응. 맞아요. 제가 용현·학익지구 도시 개발 일할 때 여기(현재 학익1동 성당이 있는 자리) 자리를 동연산업에서 매입 해 갖고 제가 거기 2층을 도시 개발 사무실로 썼었어요. 동연산업이 여기 풍림아이원 아파트 시행사였거든요. 그러다가 후문이 있는 데로 개발 사무실을 옮겼지요.

면담자: 그렇군요. 냄새나고, 소리 나고. 그리고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고요.

구술자: 그럼요.

10) 집 안에서 손수 물건을 만드는 것



면담자: 잘 때도 되게 힘들시고 이 동네가 조금 싫으셨겠어요?

구술자: 그래서 나갔어요.

면담자: 그러니까요.

구술자: 그리고 교통도 너무 안 좋고.

면담자: 그럼, 여기 동네에서 사는 동안에 주변에서 봤던 여성분들의 일이나 부업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구술자: 우리 엄마는 뜨개질했는데, 엄마가 하는 게 재밌어서 저도 어려서 코바늘 뜨개, 이렇게 사각형 모티브 뜨는 거 있잖아요? 가운데는 노란색,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뜨는 그런 것들도 제가 떴었어요.

면담자: 아! 뜨개질 부업을 하셨군요? 그때는 동인천에서 실을 떼와서 조장이 뜨는 방법을 알려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술자: 거기까지는 모르고 하여튼 실을 엄마가 받아와서 했어요. 용현동 살 때 그렇게 했더니깐요.

면담자: 아! 용현동 살 때군요. 이 동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구술자: 다 있었어요.

면담자: 네. 아버님이 잘 버셔서 어머니는 부업이나 일을 따로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구술자: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벌면 할머니만 갖다줬어요. 엄마한테 안 줬어요.

면담자: 아이고.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구술자: 그랬죠. 엄마 생각에 ‘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생활 경제권을 나한테 주겠다!’ 했는데 아버지가 틀어쥐고 안 줬다고 하셨어요.

면담자: 어머니 고생 많으셨네요.

구술자: 네. 그렇게 안 줘서 우리 옷 사 입히고 싶으면, 엄마가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고 막 그랬어요.

면담자: 혹시 여기 근처에서 농약 회사도 많이 다니셨다던데?

구술자: 엄마도 농약 공장에 다녔어요.

면담자: 거기가 계절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구술자: 농약 공장에서 밤새 일 하다가 꿈을 꾸면서 그 농약을 먹고 죽을 사람도 있었다요. 밥 먹는 것처럼 본인도 모르게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산을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엄마도 농약 공장을 갈 때 글로 넘어가서 같이 가요. 학교 뒤에 쪽문에 도착하면 엄마가 ‘얼른 들어가 막내야.’ 그러면은 저는 안 들어가고 엄마가 안보일 때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1학년 때였는데, 엄마가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학교는 가기 싫고. 그 생각도 많이 나요.



면담자: 그러니까 용현동 살 때도 어머니가 이 동네에서 부업을 좀 많이 하셨던 거네요?

구술자: 직장도 다니고 그러신 거죠. 이 동네 분들 엄청 열심히 사셨어요.

면담자: 혹시 명동 거리에 어떤 식당들이나 가게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구술자: 거기에 동양식당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름은 모르겠네요.

면담자: 무엇을 파는 가게들이었나요?

구술자: 그냥 선물집 같은 거지요. 밥도 팔고.

면담자: 그럼 대부분 마을에 있는 가게에서 생필품들을 구매하고 그러셨던 거죠?

구술자: 그렇겠죠.

지원자: 그러면은 그 상점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 동양화학?

구술자: 동양화학! 그렇죠. 동양화학 후문에서 명동 거리로 가는 길로 다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여기서 학익2동도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그랬다는데.

면담자: 그때 당시에 입고 다녔던 노동자의 근무복을 본 적이 있으실까요?

구술자: 회색이었던 것 같아요. 회색에다가 청 색깔 같은 건데, 그 청 색깔이 청구 화공이었나? 담배공장?

지원자: 그전에 공장 노동자들은 다 근무복이 있었죠.

구술자: 네. 회색 있잖아요? 약간 죄수복 같은 느낌. 그런 거였어요.

구술자: 그리고 지금 주차장 자리에도 경성 슈퍼라고 있었어요.

면담자: 주차장 자리? 경성 슈퍼. 그땐 슈퍼가 되게 많았네요?

구술자: 그럼요.

면담자: 여기 올라가는 길에도 있던데.

구술자: 강원 슈퍼! 작년에 강원슈퍼 사장님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도 암이었어요.

면담자: 아이고. 암이셨군요. 그럼 장미 아파트는 원래 무슨 회사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파트 짓기 전에는 원래 철 만드는 공장이었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세요.

구술자: 그냥 무슨 공장이긴 공장이었어요.

면담자: 이름을 다들 기억 하지 못하시네요.

구술자: 그리고 집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면담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명동 거리를 주로 이용하지는 않으셨겠네요?

구술자: 그렇지요.

면담자: 사탕 같은 거 하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하나 사러 갔었어도.

구술자: 아! 강원 슈퍼는 이용했지요. 그리고 여기 지금 태양 슈퍼 있잖아요?

면담자: 네. 태양 슈퍼. 알아요.

구술자: 태양 슈퍼 거기도 이용하고 그랬어요.

면담자: 옛날에도 있었던 거예요?



구술자: 그렇죠. 그 자리에 있었어요.

면담자: 그럼 그분도 거의 토박이시네요.

구술자: 네. 거기 할아버지가 기억나네요.

면담자: 좀 전에 태양광업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구술자: [옆을 가리키며] 이게 태양광업이었어요.

면담자: 태양광업이 뭐 하는 회사였어요?

구술자: 거기도 무슨 기계 제작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공장도 시끄러웠어요. 동양화학 공장 소리가 너무 커서 태양광업 공장 소리가 잘 안 들렸던 것뿐이지요.

면담자: 두부 공장도 시끄러웠다고 하던데 어떠셨어요?

구술자: 두부 공장도 시끄러웠지요. 지금은 여기 근처에 청정식품이 생겼잖아요?

면담자: 예.

구술자: 그 공장은 밤에만 깨를 짜나 봐요. 제가 여기 씨티 오시엘 4단지를 밤 11시, 12시에도 돌아다녀요. 어저께도 그곳을 도는데 참기름 고소한 냄새가 거기까지 나더라고요. ‘와! 여기도 냄새가 나는구나!’ 했죠. 근데 매일 그렇진 않아요. 한번 볶아 갖고 며칠에 한 번씩 짜나 봐요. 그러면 냄새가 엄청나요. 기름 냄새는 그나마 고소하잖아요? 어저께도 걷는데 냄새가 엄청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걸으면서 ‘아니! 이게 참기름 냄새인데 어디서 나는 거지?’ 막 이러면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 문화 세라믹이 있는데 여기는 애자¹¹⁾ 만드는 회사예요.

면담자: 애자가 뭐예요?

구술자: 그건 전문 용어예요. 전기가 통하는 기계에 절연 기구로 쓰는 게 애자예요. 도자기 같은 세라믹인데 요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있어요.

면담자: 아! 그릇 만드는 데가 아니었네요?

구술자: 우리가 고압선을 보면 이렇게 둥근 게 달려 있는데 그걸 애자라고 그래요.

면담자: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단어는.

지원자: 사기?

구술자: 그렇죠. 전류는 통과해야 하는데 서로 부딪히면 안 되니까 절연 기구로 그 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압선 보면 구멍 뚫은 도자기가 보이잖아요?

면담자: 네. 그런 거 만드는 회사군요.

면담자: 그럼 현재 이 동네에는 공장이 문화 세라믹과 강원레미콘 말고는 없는 거죠?

구술자: 없죠. 냄새나는 건 없지요. 청정식품은 뭐 식품 회사니까.

면담자: 제가 듣기로는 동양화학에서 마을 주민에게 옥시크린 같은 생활용품을 나눠줬다고 하

11) 송전선 등에서 전기를 절연하기 위해 이용되는 기구. 영어로는 insulator라고 하며 한국에선 ‘똥판지’로 불리기도 함



던데 기억나시나요?

구술자: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결혼했다가 IMF 때 부도 맞고 다시 여기로 들어왔잖아요?

면담자: 네.

구술자: 들어와서 본의 아니게 통장을 오래 했어요. 통장 할 때 동양화학에 가서 후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면담자: 후원을 했구나. 그때 어떤 부분을 후원 한 거예요?

구술자: ‘여기 주민들이 힘드니까 강화 쌀 좋은 걸로 20kg짜리 100포대 후원해주세요!’라고 제가 가서 말했어요.

면담자: 아! 그렇게 받아서 나눠주고 그러셨군요.

구술자: 제가 통장이니까요! 그리고 적십자 회비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했다는데, 우리 때는 적십자 회비 1등, 2등 이런 등수를 매겼어요.

지원자: 통장들한테요?

구술자: 네. 통별로요. 적십자 회비 받으러 여섯 번이나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민들은 10원도 안 내요. 그때 여기 무허가도 되게 많았어요. 여기가 1반, 저 무허가가 2반, 저 빌라랑 원룸이 3반, 4반이에요. 사람들이 적십자 회비를 내면 안 낸 사람들 거는 제가 회사에 가서 고지서를 다 갈아버렸어요. 어차피 안 내니까요. 그러다가 두 번째 회비 고지서가 나오면 그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그냥 제 통장 월급에서 내버려요. 그래도 모자라면 동양화학에 또 가서 ‘100만 원 주세요.’라고 그랬어요.

면담자: 혹시 당시에 주로 어떤 부서의 누구를 만나셨는지 기억나세요?

구술자: 총무과지요.

면담자: 아! 총무과에 가서 얘기하셨구나.

6. 결혼 후 학익동으로 다시 오게 된 계기와 학익동에서의 새로운 삶 (01:11:34~01:16:58)

면담자: 학익동에서 고1 때 나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결혼을 언제 하셨는지요?

구술자: 결혼은 27살에 했어요.

면담자: 27살에. 자녀가 딸 한 명인 거죠? 다시 노적산 호미 마을로 돌아온 시기가 언제세요?

구술자: 우리 애 초등학교 2학년 때 다시 왔지요.

면담자: 그게 몇 년도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구술자: 98년도에 우리 애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으니까 99년도에 왔나?

면담자: 왜 다시 오시게 되신 거예요?



구술자: IMF 때 부도가 나서요. 원래는 시아버님도 건축을 하셨어요.

면담자: 시아버님도?

구술자: 그래서 아버지들끼리 중매를 한 거예요.

면담자: 그러셨구나. 그럼 IMF 시절에 사업이 힘들어져서 다시 학익동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구술자: 아니요. 제가 다시 건축 일을 시작했는데, 그땐 서울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아침에 현장에 나가면 우리 애가 초등학교인데 혼자 있어야 하잖아요?

면담자: 그때는 어디 사셨는데요?

구술자: 그때는 제가 부도 맞고 막 도망 다니던 시기였어요. 한 2년 정도.

면담자: 아이도 있는데요?

구술자: 그렇지요. 애랑 둘이. 그러니까 아침에 전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데 애가 자고 있잖아요? 그럼 자는 애 머리 묶어놓고 옷 입혀놓고 김밥 만들어 놓고, 데이면 안 되니까 가스 불은 바깥에서 내려버리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김 같은 거, 오징어포 이런 거를 하도 먹어서 싫어해요. 그렇게 아이가 맨날 혼자 있어야 하잖아요? 그때 우리 엄마가 ‘여기(학익동 집) 세를 뺄 테니 네가 들어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면담자: 그렇게 학익동에 오신 후에 통장 일 하실 때 마을에 도시가스를 들어오게끔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이 마을의 해결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술자: 그거 골치 아파요! 이제 안 해요.

면담자: 아!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

구술자: 아까 말한 것처럼 저한테는 여기가 오래되고 낡아서 좋은 동네예요. 시간이 멈춘 동네 같아서 좋은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동네를 좋아하는 거는 정 때문이에요. 도시 개발 때문에 서로 등지고 있어도 어르신들이 저한테는 그러지 않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면 상추 같은 것을 봉다리(봉지) 채 떨어뜨려 놓고, 호박 같은 거는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문에다 걸어 놔요. 누가 갖다 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어르신들의 보이지 않는 나누는 정이 아직도 있어요. 속은 어쩔지는 몰라도 남 걱정 많이 하고.

면담자: 서로서로 걱정 많이 해주구요?

구술자: 그런 것들.

7. 지연되는 도시 개발로 인한 마을의 정체성을 마을 만들기 활동으로 회복하게 된 에피소드 (01:16:59~01:37:32)

구술자: 안타까운 거는 가만히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주변 공장들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거는 여기서 더 살고 싶은데 자식들이 빚을 지고 이걸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그냥 밀려



나간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동네가 개발이 제대로 됐으면 두산 아파트보다 더 빨랐을 거예요! 제가 여기 성당 자리를 사무실로 쓸 때 개발이 진행됐으면요.

면담자: 네. 그때 시작했으면.

구술자: 그랬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았고, 아파트를 들어가서 다시 되팔았어도 재산 가치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반타작도 안 된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순진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 순진하고 무지해서 계산기를 두들기지(두드리지) 못하고 ‘그렇다더라!’ 이런 것만 믿고요. 이게 환장할 일이에요. ‘누가 그러더라!’ 이런 것만 믿고. 지금도 그런 게 통하는 데가 이 마을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본인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게 그냥 통념처럼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요.

면담자: 몇 년 전에도 그 얘기 하셨는데요.

구술자: 똑같아요.

면담자: 여전히 진행형이네요.

구술자: 제가 개발 일을 한 20년 하다 손 떼버렸어요. 결론은 혼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마을 만들기도 그렇고 개발 일도 그렇고. 근데 마을 만들기는 유일하게 제가 숨 쉴 수 있는 통로였어요. 때때로 힘도 들었지만, 이 개발은 이권을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저한테 들어오는 거는 없고 무조건 희생이잖아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희생은 제가 하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뭘 받은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그냥 제 돈으로 다 쓰고 다녔던 거예요. 마을 만들기가 됐던 도시 개발이 됐던 다요. 근데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너무 많이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발 일은 안 한다고 딱 털었는데 건강이 나빠져도 아직까지 마을 만들기는 제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서 살 때까지는 그래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있어서 그래도 행복한 숙제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예요.

면담자: 마을 만들기를 안 한다는 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으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구술자: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저 공간도 꾸밀 때, 뭐가 있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언니한테 빌려서 한 거지요. 그래서 형만 한 아우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너 그게 그렇게 행복하니? 넌 개발일도 해봤으면서 지겹지 않니? 근데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왜 이걸 또 벌리려고 그러니?’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래!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속을게.’ 해서 언니 아파트 담보 대출로 공방도 해준 거예요. 제가 미쳐가지고 한 거지요. 이게 좋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누군가가 사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토요일 아침에 6시에 문을 열었어요. 공방 문 다 열어놓고 음악 켜놓고. 이 앞으로 산에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그분들이 궁금해하긴 했어요. 그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무상으로 장소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오픈 해놨어요.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을 열어놨는데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면담자: 아이고. 속상하네요. 대표님이 직접 만든 것도 있는데요.

구술자: 그런 부분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요. 방법 카메라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다 그러는 게 아니라 불과 한 세 사람 그렇게 늘 하던 사람들이 해요. 지금까지 제가 그 사람들한테 제가 알고 있다고 말을 안 했어요. 지금도 이 길로 산에 끊임없이 다니셔요. 저한테 인사도 하시고요. [웃으시며] 제가 다 아는데 나중에 못 참고 성질을 내버리면 안 되니까 공방을 폐쇄해버린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에 하고 싶었던 거는 미대 학생들한테 홍보해서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미대 학생들은 졸업작품 전시 회도 해서 평가를 받는 걸로 아는데, 전시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학생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여기를 그런 공간으로 좀 내주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대로 공간 활용을 못 했다는 거죠.

면담자: 그렇게 꼭 될 거로 생각합니다.

구술자: 올해도 10월이 되면 또 갱신해야 해요. 여기가 개발 지역이라 원래는 3년에 한 번씩 축조 건축물¹²⁾로 신고를 했거든요. 컨테이너라서 신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3년이었던 게 지금은 1년에 한 번씩으로 바뀌었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10월에도 또 해야 해요.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신고도 하러 가야 하고, 재산세처럼 비용도 내야 해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운영비는 제가 계속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십몇 년째 누구 하나 대신 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때는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지금은 외부 강사가 안 오지만, 예전에는 외부 강사가 오면 재료비를 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르신들한테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10명이 참석하면 5만 원 정도예요. 많을 때는 5만 원, 적을 때는 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돈을 안 내요. 그럼 제가 내야 해요. 그런데 그걸 또 안 하면 안 돼요. 마을 만들기를 그만둬야 하니까요.

면담자: 맞아요.

구술자: 그러니까 그런 거래도 다 제가 감당하는 거예요. 전기세, 수도세 같은 기본적인 비용은 물론이고, 모든 운영비가 제 부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을 약간이라도 대관을 통해 활용하고, 대관료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보고 싶었죠. 그런데 그게 잘되지 않았어요.

면담자: 네. 저도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술자: 그리고 여기 개발이 쉽지는 않아요.

면담자: 그러니까 개발하기 전까지 활용이라도 되면 좋죠. 그리고 이 마을이 예전엔 노적산 마을이라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노적산 호미 마을로 불렸잖아요? 호미 마을이라는 이름을 대

12) 법적·행정적으로 쓰이는 용어로 땅 위에 구조물을 새로 세운 건축물이라는 의미, 건축법상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구조물을 지칭할 때 사용됨



표님께서 지으셨다고 들었는데, 왜 호미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는지요?

구술자: 아! 호미 마을 명칭을 쓰게 된 거요?

면담자: 네.

구술자: 처음에는 ‘마을 만들기’가 뭔지도 모르고 통장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정말 쓰레기 천국이더라고요. 골목이고 어디고, 온통 쓰레기였어요. 문제는 늘 같은 사람들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쓰레기봉투를 들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녔어요. 36통이든 7통이든 상관없이, 20리터짜리 봉투 하나만 들고 다녀도 금방 꽉 차요. 쓰레기 봉투 두 장 정도 챙겨서 나가면, 그것도 밤 12시에 움직여야 해요. 제가 밤도깨비 스타일이라 밤에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TV를 봤는데, 대학생들이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 걸 봤어요. 쓰레기가 몰려 있던 코너에 밤에 와서 싹 치우고, 시멘트 벽돌을 주워다가 화단을 만들더라고요. 거기에 꽃도 심고요. 어르신들 주무시는 사이에 화분 옆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대박이었어요. 저녁까지도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던 곳이 있었는데, 밤새 그 자리가 화단으로 바뀌어 있었으니, 새벽에 쓰레기를 들고나왔다가 다시 들고 돌아간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게 거의 80%는 돼요. 물론 두 명 정도는 그대로 버리고 가기도 하지만, 80%가 쓰레기를 다시 가져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걸 보고, 제가 ‘야, 저거다! 나도 해보자!’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전봇대 근처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여기가 워낙 쓰레기 버리기 좋은 자리였거든요.

면담자: 그 옛날에 우물이 있었던 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술자: 아니요. 우리 여기 공방 대문 옆에요. 그 자리에 처음으로 화단을 만들었어요. ‘나도 저걸 해보자’ 싶었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이후로는 쓰레기를 안 버리더라고요. 진짜 안 버려요. 그러기 전에는 제가 동네를 다니면서 직접 쓰레기를 뒤져서 동사무소에 신고했어요. 쓰레기에 약 봉투들이 있으니까 누가 버렸는지 알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과태료가 나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주민들과도 실랑이가 있었고요.

면담자: 할 때는 확실하게 하시네요.

구술자: 과태료 물릴 때는 주민들이 쫓아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걸로도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TV에서 화단 만드는 걸 보고 그걸 따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로 먹히더라고요. 강압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해요. 근데 그 마음을 움직이려면 시각적으로도 예뻐야 하잖아요? 꽃이 있는 데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막 그림도 그리고 그랬어요. 그때는 여기가 빈집이었거든요. 벽돌이나 돌맹이 주워다가 화단 옆에다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서 놓으면 너무 예쁜 거예요. 밤새 그려 놓으면 아침에 보면 없어져 있어요. 누가 홀라당 집어가요. 그러다 누가 와서 ‘통장! 물감이나 재료는 누가 사줘요?’ 하길래 ‘제가 사요!’ 했죠. 그렇게 내 주머니 새는 줄 모르고 계속 끊임없이 그렸어요. 그러다가 한 번 연락을 받았는데, ‘네오맨’¹³⁾이라는 벽화 그리기 봉

사단체였어요. 지역 사회의 낡은 벽이나 웅벽을 꾸미는 순수 민간 봉사단체인데, 그 대표님이 이 동네를 발견한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너무 예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다고 했죠. 그때 통장이었으니까. 뭔진 몰라도 지금 이 썩은 벽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런 작업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좋대요. 처음엔 주민들을 모으러서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물감을 쓰게 됐고, 제가 페이펄¹⁴⁾이라는 문구 회사에 가서 백 얼마치 물감을 제 돈으로 샀어요.

면담자: [웃으며] 또 직진하셨군요.

구술자: 아니 근데 사실 한 컬러를 이렇게 한 개, 두 개만 사 오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활동할 때마다 10명씩 쓰니까요. 물감뿐만 아니라 아크릴 붓도 비싸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구청에 마을 만들기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써서 내면 선정된 곳에 예산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한계는 500까지.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었던 배경아 팀장님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팀장님!’ 그랬더니 그분이 많이 알려주셨어요. 혹시 배경아 팀장님이라고 아세요?

면담자: 예! 이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구술자: 그리고 지금은 정년퇴임을 하셨지만, 학익 1동 동장이었던 박용출 동장님도 최고였어요. 그분 둘이 없었으면 여기 마을 만들기 시작도 못 했어요. 마을 만들기가 잘 되는 동은 동장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면담자: 맞아요.

구술자: 그때 배경아 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통장님, 주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마을 이름을 붙여보세요!’ 라고요. 그래서 세련되게 붙이기엔 여기가 동네가 세련되지 않잖아요? 영어 이름을 넣어서 쓰기에는 좀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맨날 꽃 심을 때 호미를 맨날 썼잖아요?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 다 조금이라도 텃밭을 만들잖아요? 호미 쓰고, 지금도 요만한 데 있으면 노인네들이 막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 그러면 노적산 마을 말고 그냥 호미 마을은 어떨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호미 마을?’ 하시더니 괜찮대요. ‘근데 이게 뜻이 뭐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할 ‘호’자에다 아름다울 ‘미’자 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배경아 팀장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면담자: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름을 붙이신 거네요?

구술자: 그래갖고 호미 마을로 다시 사업계획서를 썼어요.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된 거예요. 그리고 유진수 팀장이라 같이 우여곡절 끝에 마을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에 네오맨이 와서 벽화도 그리고 가고 그러니까 YTN 방송에도 나간 거예요. 그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방송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인터뷰도 했어요. 그리

13) ‘나눔, 열정, 조화’를 추구하는 비영리민간단체. 현재 집수리봉사, 벽화봉사, 농촌봉사, 연탄나눔, 재난구호,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활동

14) 1992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문구 회사



고 나서 또 인천 방송국에서도 몇 번을 때렸어요(영상을 송출했다는 의미). 그렇게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는 걸 여기 동네 어르신들이 보신 거예요. 노인네들이 뭐 하겠어요? 낮에 맨날 인천 방송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마을의 이름이 ‘호미 마을’로 나오는 걸 보고는 노인 정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원래 2016년도에 우리 마을 공공 디자인 워크숍을 10회차를 하면서 모였던 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호미 마을로 방송에 나간 걸 보고 다시 모인 거예요. 그때 어르신들이 ‘여기가 누구 마음대로 호미 마을이니? 여기는 노적산 마을이지! 호미 마을은 무슨 호미!’ 그러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방송국에서는 노적산을 빼고 호미 마을이라고만 한 거죠. 당시에 저는 그 방송을 못 봐서 몰랐는데, 우연히 경상도 지방에 여행 갔을 때 그 방송을 보게 된 거예요. 노인네들이 마을 만들기고 뭐고 다 때려치우라고 해서 유진수 팀장이 어르신들한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물으니 여긴 그냥 노적산 마을이라고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호미 마을로 안 할 거면 마을 만들기 다 때려치운다고 유진수 팀장님한테 말했죠. 그래 갖고 서로 좋자고 ‘노적산 호미 마을’이 된 거예요.

면담자: 그렇게 불러야 하는 거죠.

구술자: 그렇지요.

면담자: 네. 노적산 호미 마을.

구술자: 고유명사가 호미 마을이잖아요? 원래 원초적으로 있던 거는 노적산 마을이고 거기에 이제는 호미 마을이 하나의 애칭처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노적산 호미 마을이에요.

면담자: 그러면 대표님은 노적산 호미 마을이 약 10여 년의 기간 동안 주민들과 함께 마을 만들기를 해서 마을의 모습이 좋아졌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구술자: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처음엔 내가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저 보고 ‘저런다고 동네가 변할 것 같아?’ 막 그랬어요. 그렇지만 변했잖아요. 좀 먹듯이.

면담자: 많이 변했어요.

구술자: 여기 이 동네는 마을 만들기 안 했으면 진짜 쓰레기장 됐어요.

면담자: 그렇죠. 지붕도 다 색깔별로 바꾸셨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구술자: 지붕은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고친 거예요. 여기가 원래는 슬라브였는데, 너무 덥고 그래서 경량 합판 같은 거로 다시 올린 거예요. 기와 모양으로 된 함석보다 조금 더 강화된 합판이에요.

면담자: 네.

구술자: 기와 모양으로. 이게 칼라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빨간색에 검은 용마루를 했더니 온통 다 빨간색에 검은 용마루를 하는 거예요.

면담자: 아! 이 동네가 다요?

구술자: 그래갖고 제가 업자한테 다른 칼라로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녹색에 검은 용마루 한 집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다 그냥 빨간색 검은색을 한 집들이 많아요.



면담자: 제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파란색 지붕도 간간이 보여요. 그런데 도시 개발¹⁵⁾이 되면은 이주하셔야 하잖아요?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네. 늘 도시 개발의 풍파 속에 놓여 있는 이곳을 볼 때마다 어떤 감정이 드세요?

구술자: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잠이 없는 사람이라서 밤 12시에도 골목골목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 골목에 내 손이 안 간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면담자: 네.

구술자: 지금 제가 몸이 아파서 지금 쉬어가는 중이지만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한들, 이게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약간의 절망감이 들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 놔뒀으면 좋겠는데, 그냥 놔둔다는 것은 또 제 생각이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도시 계획 여건상 가야 하긴 가야 하는데, 지금은 솔직하게 말해서 갈 거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면담자: 그런 마음도 있고.

구술자: 이러지도 못하고 확 놓기에는 너무 내 마음이 아프고, 이게 언제 어느 때 이게 없어질 건데 내 마음도 다 없어질 것 같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 마을이 저한테는 뜨거운 감자 같은 거예요.

8. 도시 개발로 인해 마을을 떠나야 하는 주민의 안타까운 심정, 인터뷰 마무리 (01:37:33~01:45:15)

면담자: 이렇게 열정을 쏟으셨는데, 현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지요?

구술자: 주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대표는 어디로 이사 갈 거야?’라고. 여기 주민들은 핸드폰이나 뭐가 안 되면 저한테 쫓아오거든요. 서류도 모르면 쫓아오시고.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만, 그분들 새벽 6시가 되면 오시는데, 알고보면 당신네들이 엄청나게 참았다가 오는 거예요. 노인네들은 새벽 4시나 5시면 깨는데 저를 배려해서 찾아오는 게 6시나 6시 반이에요.

면담자: 예고. 아침잠 많으신 대표님이신데.

구술자: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었어요. 지금도 ‘대표야! 이거 핸드폰 뭐가 안 돼!’ 이러시니 제가 ‘저 이사 가는 대로 다 따라오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디로 갈 건지는 저도 아직 몰라요. 간간이 찾아보고 있긴 한데.

면담자: 갈 만한 데가 있나요?

구술자: 여기저기 뒤져보고, 물건 나온 것도 좀 보고 그러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 땅값 받아 갖고는 빌라도 못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수봉산 꼭대기를 가서 뭐 할래도 이

15)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돈 갖고는 주택을 살 수도 없어요. 여기서 보상받아 갖고 아파트 전세도 못 가는 형편이에요.

면담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구술자: 근데 우리 집은 그래도 한 50평 되잖아요. 저 36평이나 20 몇 평들은 더 힘들죠. 왜냐하면 도시 개발은 감보¹⁶⁾가 40, 50%가 다 넘거든요.

면담자: 감보가 뭐예요?

구술자: 빼고 주는 거. 내 땅이 10평이면은 보상해 주는 건 5평도 안 돼요. 지금 여기 주민들 감보가 50%가 다 넘어요. 도시 개발은 그런 거예요. 내가 땅 살 때 10원 하나 보태준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도시 개발이라는 거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의 사유 재산은 저촉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봐봐요. 지금 이게 땅값이 500이라고 쳐요. 10평이라 했을 때 개발하기 전에 이게 500이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번지수가 여러 개잖아요. 그럼 개발을 하려면 이걸 한 필지로 만들어야 해요. 그걸 조합에다 다 동의를 받으면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토목 공사예요. 쉽게 말해서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한 필지가 되면 이제는 여기다가 도로 뭐 어찌고저찌고 막 뺄 거 아니에요. 공원도 만들고요. 그렇게 빼고 나면 개발 후에는 내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내 땅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평지가 만 평이면 내 땅은 만 분의 10평이라 그래요. 그러면 개발하기 전에 10평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개발 후에 이걸 싹 밀고 나서 보면 감보가 50 몇 프로니까 결국 4점 몇 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만 준대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도시 개발이에요. 여기가 그런 거예요.

면담자: 대부분 이렇게 지주택¹⁷⁾ 들어오는 도시 개발들은 다들 그런 케이스로 가나요?

구술자: 지주택은 또 다른 거예요.

면담자: 지주택하고 도시 개발?

구술자: 여기는 지금 도시 개발에 의한 지주택을 간다. 그래 이런 거는 지금 전례 없는 처음이에요.

면담자: 아!

구술자: 아니 이제 개발 얘기하지 말죠! 힘드네요.

면담자: 네. 어쨌든.

구술자: 골치 아파. 그리고 알아먹지도 못하고요.

면담자: 그러면 향후 어떻게 살 건지는 아직.

구술자: 어떻게 살 건지는 대충은 계획은 세워야겠지요. 근데 여기 분들은 뭐 어떻게 하시지.

면담자: 저는 계속 대표님의 계획을 물어보는데 대표님께서도 대표님의 계획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여기 분들과 함께할 계획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대표님이

16) 토지구획 정리에서 공공용지 조성에 소요된 만큼 권리자의 토지 면적을 줄이는 것을 말함

17) 동일 지역 범위(시·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및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직접 사업 시행의 주체(조합원)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



이 마을을 위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너무나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구술자: 아니! 어디로 갈 거야? 맨날 저한테 물어보니까요.

면담자: 네.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못한 얘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구술자: 못 하는 얘기까지 뭘 다 해요! 그냥 여기까지 하고요.

면담자: 그럼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전의 기억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는 게 학산문화원 미추홀 시민기록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이런 경험이 대표님께 어떻게 느껴지세요?

구술자: 좋죠. 지난 게 있어야지 현재도 있고, 그다음에 과거가 있으면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역사 드라마 같은 것도 없으면 아이들은 모른다 말이에요. 지금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지만요. 근데 그걸 약간 현대화해서 재미 삼아 각색해서 넣으니까 연예인들이 나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봐서 그나마 역사물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까지는 아니래도, 이 동네에 옛날에는 집창촌 있던 데가 저렇게 아파트가 들어와서 바뀐 것처럼 지금도 동네의 과거 모습에 대해 모르는 아이들이 더 많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 준다는 거,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요. 또 저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낡은 동네, 멈춘 동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그분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고 일단은 따뜻하고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전달됐으면 저는 참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록물을 남긴다는 거는 좋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의미가 있다' 너무 좋은 거죠. 감사합니다.

구술자: 이렇게 꾸준히 내가 아닌 누구를 통해서라도 전달이 된다면, 그리고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에게 바르게 잘 전달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면담자: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술자: 고생하셨습니다.

*녹취문 내용을 세부 주제로 나눠 시간 기입

글씨체 : 함초롬바탕

글씨크기 : 세부주제-12pt(볼드체 적용) / 내용-10pt

줄간격 : 200%